

# Inside ACA

2024년 3 - 4월

acaddc.org

그동안 평안 하셨는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3-4월 선교편지를 준비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편지를 준비하다 보면 지난 두 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목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진들을 정리하면서도 깜빡 잊었던 소중한 순간들이 다시 기억이 나면서 그 순간들을 만들어 주셨고 함께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달에 한 번 선교편지를 쓰는 것은 후원자/동역자 여러분에게 사역의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의무도 있지만, 저 개인에게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저희 작은 학교를 통해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

니다. 저희 교사와 학생들은 봄방학 기간 필리핀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2010년에 시작한 저희 학교의 Global Outreach 단기선교 사역이 오늘날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을 선교편지에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학생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를 경험하며 긍정적이고 담대해 지며 섬김과 선교에 관심을 가지는 학생들로 성장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 학교의 중요한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귀한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영철, 김혜경 선교사 드림

## Vision

우리는 다문화가정 아동과 이주아동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는 사회를 꿈꿉니다.

## Mission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과 이주아동들이 교육권리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필리핀 현지 목사님과 라야(Laya)지역을 방문하는 선교팀



# Global Outreach 2024

## 영원토록 울러 퍼질 것 같은 여정

**저**희 학교 GO(Global Outreach) 팀이 4월 5일부터 12일까지 필리핀 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5명의 교사와 6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11명 팀 멤버들은 아름다운 필리핀 나라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자 여러 다양한 지역을 방문하였습니다. 늘 그랬듯이, 선교사님들과 필리핀 현지 사역자들을 통해 주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 방문한 곳은 인구가 약 6,000명에 달하는 실란(Shilan)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실란 지역은 공업 용품을 판매하는 곳과 작은 마켓, 그리고 도박장이 많은 곳이며 영적으로 많이 어두운 곳입니다. 이 마을에는 벤엘교회가 지난 15년 동안 길을 잃고 상처받은 이들에게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멤버들과 벤엘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활기차고 주

님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벤엘교회 형제자매들은 어둠 속에 있는 실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영적 용사들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 저희 팀은 VBS(Vacation Bible School)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 누에바 비스카야(Nueva Viscaya)라는 지역으로 3일간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희는 Canaan, Laya 및 Tikey에 있는 교회에서 어린이와 성인을 위한 일일 VBS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예수! 우리의 굳건한 반석”이라는 주제를 통해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도록 도전하고 격





려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성인들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이다 보니, 부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VBS를 하는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는 Benguet State University의 Bokod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크리스천 대학생 단체는 저희를 기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산꼭대기에 위치한 곳에 살고 있는 이 젊은이들은 저희 팀 멤버들이 그들을 찾아와 주어 함께 예배를 드리며 친교를 했다는 이유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며 저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 된 목소리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됨을 재확인하며 주님께 힘찬 찬양을 올려 드렸습니다. 11명의 대학생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감격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이번 선교 여행은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단기선교 여정을 되돌아보면서 너무나 부족한 11명의 팀 멤버들이었지만 이런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낍니다.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되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셔서 국경을 초월하고 여러 사람들의 삶을 감동시킨 여정에 대한 지속적인 교훈과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단기적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향은 영원토록 울려 퍼질 것입니다.

### 띠끼 초등학교 방문 여덟 명의 학생들과의 특별한 만남



**띠**끼(Tikey)는 필리핀 보코드(Bokod)의 해발 1,500 미터에 위치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는 높은 산맥을 배경으로 한 하나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띠끼 초등학교에는 교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실에는 1학년 부터 3학년까지 8명의 학생이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분의 선생님이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저희 팀은 목요일 오전에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선생님과 학생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학생들의 눈은 호기심과



따뜻함으로 빛났습니다. 저희가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한달 전부터 알고 있었던 학생들은 이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또한 8명의 학생들을 위한 학용품과 여러 미술용품을 한국에서 준비하면서 이날을 기다렸습니다. 학생들은 저희가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을 받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선물을 받은 학생들의 얼굴에 나타난 기쁨에 저희도 함께 기뻐하며 한국에서 열심히 후원금을 모았던 보람을 느꼈습니다.

선물을 나눠준 다음 저희는 학생들과 함께 미술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 모두 진지하게 미술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옆에서 코칭을 해 주면서 학생들의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어린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띠끼 초등학교를 떠날 때 저희는 여덟 명의 띠끼 초등학교생들에게 기쁨을 선물하였고, 학생들은 우리 마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한 단기선교 모금활동

**필**리핀 단기선교를 위해 GO팀 멤버들은 모금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모금을 하는 목적은 필리핀에서 여러 마을들을 방문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숙소비용,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필요한 재료 구입, 그리고 방문하는 교회와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모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교에서 카니발 행사와 베희시장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필리핀으로 떠나기까지 2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카니발 행사는 중요한 모금 행사였습니다.



필리핀 단기선교 사역을 위해 저희에게 필요했던 총 금액은 8,200,000원이었습니다. 그동안 팀 멤버들이 열심히 모금을 해서 7,500,000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저희 팀은 700,000원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모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카니발 게임을 준비하고 베희시장에서 판매할 물품들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과 한국에서 후원을 해주시는 교회와 사람들이 있어, 카니발을 하기도 전에 부족했던 부분의 2배가 넘는 금액이 채워졌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금 목적을 미리 이룬 덕분에 카니발을 축제의 분위기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통해 GO 팀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단기선교를 떠나기도 전에 경험을 했고, 기쁨과 확신을 가지고 선교지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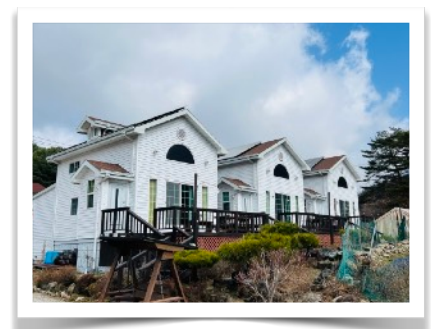
## GO 팀 멤버 수련회



**3**월 22일 금요일, GO팀 멤버들은 Team-Building 수련회를 포천에 있는 산정호수에서 가졌습니다. 저희는 금요일 오후가 되자 학교에서 있었던 카니발을 진행하느냐고 지쳐 있었지만, 수련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수련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다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모두가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게 되면서 더 이상 선생과 학생의 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떡을 떤 것입니다.

식사 후에는 뜨거운 찬양과 예배,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로 묶어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팀 빌딩 활동과 게임에 참여하면서 많이 웃고 서로를 세워주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다가오는 필리핀 여행은 큰 미션으로 보였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가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필리핀에서 심을 수 있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수련원을 떠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음을 알았습니다.



##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학생들 돌보는 사역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지만 다양한 종교와 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사들은 모든 학생들의 종교와 문화를 늘 존중해 해 왔습니다. 어떤 배경의 학생이던,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던, 어떤 인종이던, 저희 학교에서는 차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학생들을 사랑하며 돕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학교에는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에서 온 무슬림 학생들이 늘 있었습니다. 무슬림 학생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라마단 기간을 통해 학생들과 관계를 더욱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라마단 기간은 3월 11일부터 4월 8일이었습니다. 저희 기독교의 사순절은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였으며 고난주간은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과 라마단 기간이 겹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남자 학생 3명이 점심을 금식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을 복음을 나누기엔 오히려 더 좋은 기회로 보고, 저도 고난주간 동안 점심을 금식을 하며 무슬림 학생들과 따로 만나 학생들이 금식하는 이유를 들어 주며 저 또한 고난주간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교사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학생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시도해 왔습니다.

**1. 이해해 주기:** 라마단에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음식과 물을 완전히 금하는 것이 수반된다는 점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무슬림 학생들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 질문하거나 낙담 시키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학생들에게 라마단의 기간 동안 무슬림 학생들을 조롱하거나 훼손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2. 기도해 주기:**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학생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라마단은 무슬림들에게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인식하며, 학생들을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그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금식 기간 동안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3. 참여해 주기:** 우리 교사 중 일부는 라마단 기간 동안 무슬림 학생들과 함께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절기인 사순절과 라마단을 비교하면서 고난주간 때 주님께 일어났던 사건들을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더 깊은 신앙의 대화에 참여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라마단 기간에 무슬림 학생들의 종교 행위를 외면하거나 거부하기 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알기를 원하고, 금식 때문에 힘들어 하는 무슬림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여 주면서 우리 교사들은 더 깊은 대화를 학생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 지구의 날 건물 빔, 화분으로 재활용



**4**월 22일, 저희 학교는 다양한 실내외 활동으로 지구의 날을 기념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게 될 프로젝트에 대해 들뜬 마음으로 학교에 왔습니다. 창의성과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저희는 학교마당에 있었던 오래된



건물 빔을 아름다운 화분으로 바꾸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학교 전체를 하나로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지구에 대한 책임 공유를 촉진하는 공동 노력이었습니다. 고학년 학생들은 오래전에 사용했던 건물 빔을 새롭게 페인트를 하였습니다. 한편, 초등학생들은 예쁜 화분으로 변신한 빔을 다양한 식물의 씨앗으로 채우는 다음 단계에 열성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구의 날은 일년 중 단 하루가 아니라 주의 깊은 청지기직의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또한 지구의 날을 단순한 행사가 있는 하루로 생각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선물인 지구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 희망을 심어주세요.

후원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merasian@mac.com  
jameskangmccann@gmail.com